

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4월 8일(수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코처라코타, 금리 인상, 내년 하반기로 연기 주장 제기돼
- 2) 3월 고용추세지수 약간 둔화, 127.65로 전년대비 5.6% 상승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유로존 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.2% 하락, 4개월 연속 상승 멈춰
- 2) 일본, BOJ 기존 통화정책 유지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미국 페덱스, 44억유로에 네덜란드 TNT 익스프레스 인수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코처라코타, 금리 인상, 내년 하반기로 연기 주장 제기돼

- 지난 7일,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니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
- 코처라코타 총재는 FRB는 통화 완화책 수준을 낮추는데 이례적인 인내심을 발휘해야만이 물가 및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올해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높이는 것은 실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
 - 또한, 내년 하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며 2017년 말까지 금리를 약 2%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
 -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에 따르면 FRB 위원들의 2017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3.125%를 기록한 바 있음
- 코처라코타는 FRB의 법적 책무인 완전고용 창출과 가격 안정은 최소 몇 년이 더 지나야 둘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향후 3년내에 2% 목표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
- 한편,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작년동안 엄청난 개선세가 나타났으며 경기침체 이전인 2006년 고용시장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작년과 같은 모습이 최소 3년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

2) 3월 고용추세지수 약간 둔화, 127.65로 전년대비 5.6% 상승

- 지난 6일 미국 민간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지난달 미국의 고용추세지수(ETI)가 전년대비 5.6% 오른 127.65를 기록했다고 발표
 - 이는 직전월인 2월의 수정치 기록인 127.77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미국 고용시장의 호전 추세가 지난달에 비해 다소 주춤했다는 의미
- 또한, 컨퍼런스보드의 개드 레바논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러시치 부문 담당 이사는 ETI 성장세는 올해 1분기에 둔화했다며 ETI 약세는 지난달 고용지표 부진과 함께 고용 증가세 둔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
 - 그는 그렇다더라도 2분기 고용 성장세가 월간 고용자 수 20만명 추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여 언급
- 한편, ETI를 구성하는 8개 요소는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 수,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, 즉각적인 채용은 불가능하지만 일자리 여유가 있는 기업 수의 비율, 임시직 고용자수, 총 임시고용자 수 대비 비자발적 임시고용자 수의 비율, 구인 산업생산, 실질 생산 및 무역 매출로 분석
 -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이 가운데 3개 요소가 부정적이며 나머지 5개 요소는 긍정적, 부정적인 3요소는 즉각적인 채용은 불가능 하지만 일자리 여유가 있는 기업 수의 비율, 총 임시고용자 수 대비 비자발적 임시고용자 수의 비율,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응답자 수 등 이라고 분석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유로존 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.2% 하락, 4개월 연속 상승 멈춰
 - o 지난 8일,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2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.2% 하락했다고 발표
 - 이는 로이터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EU 소매판매는 이로써 4개월 연속 상승세로, 전문가들은 저유가로 개선됐던 가구별 소비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
 - o 하지만, 소매판매는 전년대비론 3.0%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이전치인 3.2% 증가를 하회하지만 시장 전망에는 부합
 - o 한편,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비식품 부문 판매가 전년대비 4.3% 상승했으며 자동차 연료 판매가 4.2% 상승하여 전년대비 전체적인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

2) 일본, BOJ 기존 통화정책 유지

- 지난 8일, 일본은행(BOJ)은 금융정책회의를 열고 본원통화 규모를 연간 80조엔 늘리는 현행 통화완화 정책을 지속, 기준금리도 0.10%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힘
 - 앞서 블룸버그통신의 설문조사에서 34명의 이코노미스트들 모두 기존 정책 동결을 예상했으며 이중 22명은 BOJ가 오는 10월까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 예상
- 기존 통화정책 유지에는 기업들의 실적향상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를 늘리는 경제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
 - BOJ는 당분간 물가가 0%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인플레이션 목표치 2% 달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
- 또한, 통화정책위원 9명 중 8명이 기존정책 유지에 찬성했으며, 기우치 다카히데 위원은 연간 자산 매입 규모를 45조엔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
- 한편, 미쓰이스미토모의 니시오카 준코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낙관적 경기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, 저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낮춘다 해도 BOJ가 단기적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미국 페덱스, 44억유로에 네덜란드 TNT 익스프레스 인수

- o 지난 7일,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항공 운송업체 페덱스(Fedex)가 네덜란드 특송업체 TNT익스프레스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이날 페덱스와 TNT는 주당 8유로에 페덱스가 TNT를 현금 인수하는 안을 TNT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, 이는 지난 2일 TNT 증가에서 33%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으로 총 44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, 인수 절차는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
- o TNT는 2년전 페덱스의 경쟁업체인 미국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(UPS)가 내놓은 약 70억달러 규모의 인수안에 동의했지만 최종 인수를 앞두고 유럽 반독점 당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
 - 전문가들은 이번 양사 합병의 경우 매출 규모면에서는 페덱스가 UPS를 앞서지만 유럽지역 점유율면에서는 UPS에 한참 뒤처지기 때문에 UPS때와는 달리 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 예상
 - 2013년 기준 유럽 국제운송시장에서 페덱스와 UPS의 점유율은 각각 10%, 25%를 차지한 바 있음
- o 한편, 페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유럽지역의 사업을 강화, 글로벌 성장률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으며 프레데릭 스미스 페덱스 CEO는 TNT 인수를 통해 국제 운송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대시켜 성장 지속 중인 글로벌 전자상거래 등 시장의 수혜를 얻을 것이라 언급